

女兒의 初經에 관한 調查研究

—경북 지방의—

〈경북의대 부속 간호학교〉 김 영 희
박 점 희

I. 緒 論

小兒의 成長發達過程中 思春期(Puberty)는 대략 10~14세부터 2~3년 사이로 二次性徵이 나타나며 生殖機能의 能力을 가지는 時期를 말하며 女兒에서 男兒보다 1~2年 빠르다고 한다. 1), 2), 3), 4), 5)

女兒의 初經(Menarche) 年令은 美國에서는 10~16세로 平均 12~13세라고 하나 1), 2), 3), 4), 5) 우리나라에서는 最近의 正確한 發表는 없는 것 같고 統念의으로 14~15세로 알고 있으며 이 初經의 早熟의 差異는 種族의 素因과 氣候風土에 左右되겠지만 全身健康 및 榮養狀態, 社會文化的 環境에도 影響된다고 하는바 1), 2), 3), 4), 5) 現在 우리나라에서도 經濟 文化生活水準의 向上과 또 西歐文化의 傳來로 因하여 心理的 영향面에서 童貞보다 더 개방된 性知識습득의 자극적인 環境에서 어느정도 早熟할 것으로 豫측하여 著者들은 1969年 12月 大邱市와 慶北山間의 邑所在 地方의 한 地域을 擇하여 初經可能年齡의 女兒들을 對象으로 하여 調查했던바 얼마의 成績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調查對象 및 方法

初經時의 年齡(年, 月, 日)과 그當時의 환경, 心理的 狀態를 묻는 設問을 作成하여 大邱市內

中心地의 國民校 5~6學年, 女中校의 1, 2, 3學年, 女高 1年生까지의 700名과 慶北山間地方의 邑所在地의 同學年級 700名에게 養護教師 및 女教師의 指導下에 無記名으로 作成토록 1969年 12月에 實施했던바 大邱市 265名, 地方 270名의 應答者를 얻었다.

III. 調查成績

初經年齡의 범위는 10~17세였고 最年少年齡은 8歲로 2例있었고 平均年齡은 13.7歲로서 通常적인 14, 5세보다 조금 빠른 것 같고 사춘기의 다른 신체적 발육치가 20년전 한국의 표준치보다는 劣勢라는⁴⁾ 것에 비교하면, 이것은 생각할 불만하다. 地方과 都市의 比較에 있어서 平均年齡은 地方은 13.8세 都市는 13.5세로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 도표 1에서와 같이 各年齡에 있어서 百分值數로 比較하였는데 都市는 地方보다 低年齡에서 조금더 많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므로 都市가 地方보다 조금더 早熟한 것같이 보인다.

初經時의 心理的 狀態를 묻는 사항에 있어서 表 2에서 보는바와 같이 初經에 관한 知識을 가지고 있어 心身이 같이 成熟됐다고 볼 수 있는 C.D.E 項의 應答者가 年少年齡인 10歲 50%, 11歲 33.3%, 12歲 27.8% 13歲 47.7% 였고 平均年齡에 속하는 13~14歲에서 全然 예비지식없는 狀態에서 初經을 가진 사람이 20% 미만이었고

<표 1> 초경연령의 지역별 및 연령별 분포

연령군·세	지역		지방(읍)		Total	
	인원수		No.	%	No.	%
8	2	0.8	0	0	2	0.3
9	0	0	0	0	0	0
10	1	0.4	2	0.7	3	0.6
11	10	4	2	0.7	12	2.2
12	14	5.2	13	4.8	27	5.0
13	51	19.2	45	16.7	96	17.9
14	95	35.8	83	30.8	178	33.3
15	71	26.7	81	30.0	152	28.4
16	18	6.8	44	16.3	62	11.6
17	3	1.1	0	0	3	0.6
Total	265	100	270	100	535	100

高年齡층인 16, 7歲 일수록 오히려 初經을 기다리고 걱정한 狀態인 E項의 應答者가 28.8%, 62.5%로서 心理的으로든 어느정도 未熟한것 같이 보인다.

또 都市와 地方의 比較에 있어서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心理的으로 未準備狀態인 A項의 應答者가 都市 23.5% 地方 10.7%, B項의 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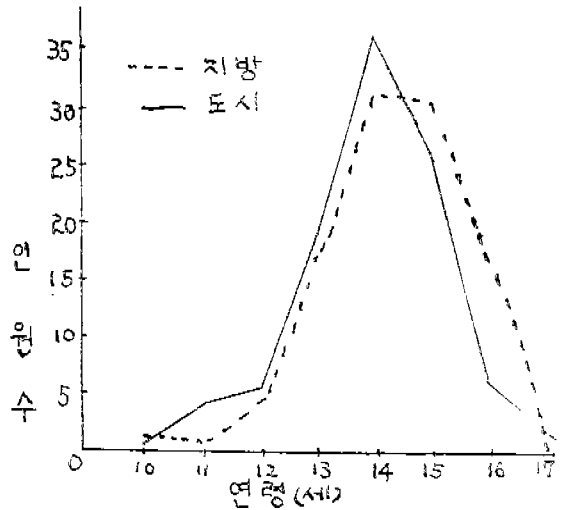


Fig. I. 지역별 초경 연령의 비교 (percentile)

答者는 都市 22.8% 地方 19.1%로서 都市보다 地方이 훨씬 적으며 心理的으로 준비상태라고 볼 수 있는 C項에서는 18.4%, 17.2%의 거의 同率. D項은 都市와 地方의 比가 24.7%와 34.4% E項은 10.6%와 18.6%로서 地方이 거의 10%씩 더 優勢하여 全體的으로 볼때 地方의 女兒들이 都

<표 2> 연령별 초경시 심리상태의 비교

연령군·세	상황 A		상황 B		상황 C		상황 D		상황 E		Total	
	No.	%	No.	%	No.	%	No.	%	No.	%	No.	%
8	2	100										100
9	0	0										0
10	0		1	50.0	0	0	1	50.0	0	0	2	100
11	6	50.0	2	16.7	1	8.3	2	16.7	1	8.3	12	100
12	9	40.9	7	31.8	3	13.7	1	4.5	2	9.6	22	100
13	17	17.8	28	29.5	17	17.8	24	25.3	9	9.6	95	100
14	30	21.1	4	2.8	38	26.8	53	37.3	17	12.0	142	100
15	26	20.4	3	2.4	24	18.9	50	39.4	24	18.9	127	100
16	4	6.8	3	5.1	10	16.9	25	42.4	17	28.8	59	100
17	0	0	0	0	1	12.5	2	25.0	5	62.5	8	100

설명 A : 묻랐던 일 있어서 깜짝놀라 걱정했다.
 B : 공연히 무섭고 기분나빴다.
 C : 들어본일이 있어 놀라지 않았다.

D : 학교에서 배운일이 있어 보통으로 생각했다.
 E : 오히려 나한테는 없는가 하고 걱정하고 기다리는 중이어서 기쁘고 반가웠다.

항의 女兒들보다 心理的으로 未熟해있다고 본다. 初經時의 위생처리준비 및 신체변화에 대한 의의 對상대의 파악에서는 자연형층의 거의 半數(50%)가 어머니였고 다음 順位로 언니, 기타의 사람의 순서였고 學校의 教師는 單1例 뿐이었으며

高齡층인 17세에서는 自己自身이 처리했다는 수가 50% 였다. 또 11~16세까지에서 自己自身이 처리했다는 己項의 應答者가 各 20~30%의 상당수로서 의의 對상대의 不在와 같은 경우도 포함됐지만 自己 스스로 해결하므로써 初經에 對한

〈표 3〉 지역별 초경시 심리상태의 비교

사항	지역		도 시		지 방	
	인원수		No	%	No	%
A			60	23.5	28	10.7
B			58	22.8	50	19.1
C			47	18.4	45	17.2
D			63	24.7	90	34.4
E			27	10.6	49	18.6
Total			255	100	262	100

〈표 4〉 초경시의 처리 및 의논 상대의 연령별 비교

연령군세	사 항	가		나		다		라		마		바		Total	
8		1	50	1	50									2	10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1	3.3	2	66.7									3	100
11		5	41.7	2	16.7	1	8.3	4	33.3					12	100
12		12	50.0	6	25.0	0	0	6	25.0	0				24	100
13		46	48.4	19	20.0	2	2.1	26	27.3	1	1.1	1	1.1	95	100
14		78	44.3	40	22.7	10	5.7	45	25.6	3	1.7			176	100
15		73	48.4	41	26.4	6	4.0	31	20.5	1	0.7			152	100
16		27	45.8	11	18.6	3	5.1	18	30.5					59	100
17		1	12.5	2	25.0	1	12.5	4	50.0					8	100

설명 가: 어머니와 의논하였다.
 나: 언니와 의논하였다.
 다: 친구와 의논하였다.

라: 자기 스스로 처리했다.
 마: 기타의 사람과 의논했다.
 바: 선생님과 의논했다.

을 比較하였으며 初經時의 心理狀態 및 그 처리의 의논상대를 觀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慶北地方의 女兒의 初經年齡은 10~17세이며 平均年齡은 13.5세로서 13~14세 사이이고 都市의 女兒들은 地方보다 조금 더 早熟한 것 같았다.

(2) 初經時의 心理的狀態는 比較的 初經에 對한 예비지식을 가진 안정된 상태로서 조속하다고 보며 地方의 女兒들이 都市보다 心理的으로 훨씬 더 早熟해 있었다.

(3) 初經時의 身體의 變化 및 위생처리에 對한 의논상대로서는 半數(50%)가 어머니이고 다음이 自己自身(20~30%), 언니, 친구, 기타의 사람의 順位이고 學校教師는 單 1例 뿐이었으며

올바른 指導를 받지 못할 경우를 생각할 때 좀더 Menarche에 對한 正當한 認識과 준비에 對한 教育이 必要할 것 같다.

V. 結 論

1969년 大邱市內와 慶北地方(邑所在地)의 國民校 5, 6學年부터 女高 1學年까지의 女兒들을 대상으로하여 初經年齡을 파악하고 都市와 地方

自己自身이 처리한 것이 상당수로서 의논상대의 不在, 또는 初經에 對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는 早熟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거나 初經에 對한 올바른 認識을 갖지 못한 경우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처리하므로써 올바른 처리를 못할 것을 우려하여 좀더 Menstration에 對한 正當한 認識과 教育이 必要하겠고 年齡分布를 보아서 13歲(中1年) 初부터 性教育을 시행함이 좋겠다.

끝으로 좀더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자료수집을 못한 것으로 遺憾한 것이 애석하며 積극후원 지도해 주신 本 醫科大學의 小兒科 主任教授 최정현 先生님과 예방의학교실의 김두희 先生님께 深甚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參 考 文 獻

- 1) Nelson, Vaughan, Mckay; *Textbook of pediatrics 9th edition*
- 2) Slobody; *Survey of clinical pediatrics*
- 3) Marlow; *Textbook of Pediatric Nursineg 2nd edition*
- 4) 대한소아과학회발행 · 韓國小兒의 發育標準值 1967
- 5) Armrtrong & Browder; *The Nursing Care of Children 2nd edition.*